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455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 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넘뜨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며,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나의 탁월한 재능'이나 '큰 목표'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나는 거창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눈에 띄는 재능, 화려한 스펙, 큰 야망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높지 않음을 성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절 뎌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절 뎌 아이는 더 이상 절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늘 어머니의 품을 찾고 절을 먹고 돌아서면 또 찾는 갓난아이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어머니의 품 그 자체를 신뢰하며 잠잠히 머무는 성숙한 의존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족하고, 더 큰 것을 탐하지 않는 '단순하고 깊은 의존'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3절에서 다윗은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라 선언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 자녀의 성적, 경제적인 안정, 남들이 알아주는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성공의 비결이 '큰 것'을 좇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품에 머무르는 단순함'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계산하고, 너무 조건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영적 단순함을 가족 모두가 회복합시다. 우리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절 뎌 아이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눈에 띄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현신자가 되어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오늘의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그때 시편 131편으로 대답합시다. "성공의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 뎌 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절 뎌 아이 같은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1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매주 전도사님이 전 주에 설교한 성경구절을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어린 다섯 살 아이도 술술 외웠습니다. 한 번은 빌립보서 2장 6-8절과 같이 길이가 긴 말씀도 외웠다고 합니다. 과연 어린 아이가 외울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아이는 거침없이 암송했습니다. 칭찬하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매일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기에 매일 열 번 이상 읽어주어, 핸드폰에 녹음해서 수시로 듣게 했더니 어느 순간 술술 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면 감사와 함께 얼마 아배 건강을 위해,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오빠들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은 '셰마(Shema)'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헌신이고,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꺼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와 교사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다섯 살 아이가 말씀을 외운 비결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들려주는 부모의 사랑과 인내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의 설교만으로는 자녀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식탁 대화, 잠자리에 들기 전의 기도, 차 안에서의 암송, 스마트폰 영상보다 먼저 읽어주는 말씀 한 구절, 이런 작은 반복들이 아이의 영혼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럴 때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지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반목이 가장 확실한 우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는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세상 성공의 기운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 매일 선택하는 가치, 매일 보여주는 태도가 자녀의 신앙 우산이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단한 하늘을 여는 열쇠, 기도』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364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팔의 지진은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인류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네팔과 중국의 영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은 그 시적이 불행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반드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예레미야 33장 1~3절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돌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지만, 이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내가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곳에서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온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즉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경제의 논리로, 운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한 가정에는 질병이 몰라가고, 가난이 사라지고, 마귀의 시험이 떠나갈 것입니다. 요란한 기도소리란 시끄럽게 떠들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삶의 리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을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을 확히 밝혀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는 기도의 등불이 됩시다. 기도하는 소리가 요란한 가정에는 질병이 몰라가고 가난이 사라지며 마귀 시험이 떠나갈 것입니다. 9월, 우리 가정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의 답보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란하리만치 기도하는 가정으로 서 봅시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십니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218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 건강, 재정의 문제 해결, 자녀의 성공, 관계의 회복 등.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합시다"라는 요청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법계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찬양대가 찬양하며 거룩한 성의 예물을 입는 등 경성을 다해 모셔 왔고,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며 화목제로 예배드렸습니다. 백성에게는 떡 한 덩이와 건포도와 고기 한 덩이씩 나눠주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다윗의 마음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비와 이슬을 맞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먼저 생각했고,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늘 받기만 바라고, 늘 내 필요가 먼저이고, 정작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정성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꿈을 가지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며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는 약속은 먼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에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복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복된 기도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위한 축복이 됩니다. 이번 9월의 마지막 주, 우리 가정이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집과 나라의 기초까지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신앙의 오솔길

소명

우리는 일을 너무나 즐기고 좋아하고 사실상 일을 예배하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가?

우리는 섬기는 활동이나 유용성, 하나님을 위해 생산성 있게 일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그분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창자 길이 남기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은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성향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디엔가에 가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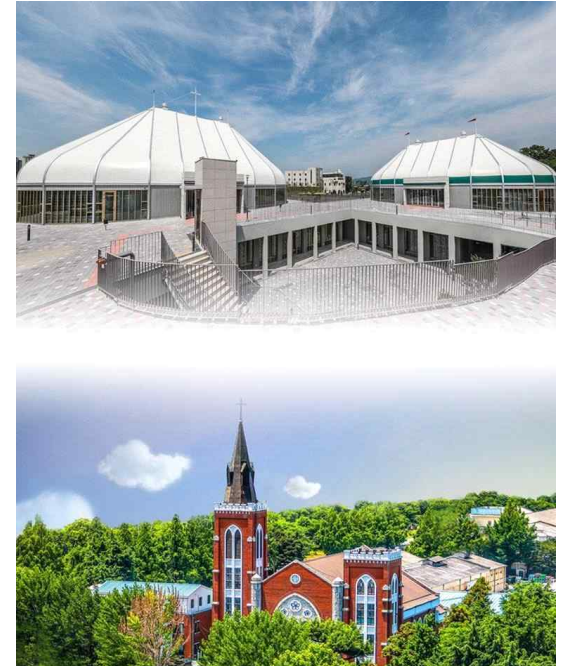
우리는 누군가에게로 부름 받았다. 먼저 특별한 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다.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다.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 보내시는 남자와 여자는 평범한 인간들이며, 아울러 그들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다."

그의 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라"는 말이다.

『소명, 오스 기니스 지음 / 홍병룡 옮김』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